

2017 하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전라북도 장수군
- 산서지역아동센터



2017. 7

저는 이화봉사단에 오는 것도, 산서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산서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한 후,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아 올해 이화봉사단 공문이 나왔을 때 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지역을 왜 또 가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저는 산서를 두 번 방문한 것에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방문과 두 번째 방문에서의 차이점은, 제가 프로그램과 아이들에 대해 조금 더 잘 알게 되었고, 아이들은 분명히 자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지난 여름, 첫 번째로 산서를 방문했을 때에는 정말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고, 프로그램의 난이도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에 대해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에서는 아이들을 한 번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재밌게, 그렇지만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게 되어서 뿌듯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작년에 봤을 때보다 키도 크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성장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사가 아이들을 길러낼 때 어떤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는지를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더위와 일정에 조금은 힘든 시간이었지만 아이들과의 4박 5일은 그 무엇보다도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웃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이 서로 많이 들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에게는 이번 일주일의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 아이들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그동안 준비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아 힘들었지만 항상 아이들과 만나는 것은 말 그대로 재미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작년의 나와 비교하게 되고 작년의 상황, 작년에 ~게 했더라면, 등등 많은 것들이 오버랩 되는 것 같다. 처음에는 그냥 열정만 있어 아이들과 있는 그 순간을 위해서라면 어떤 과정을 다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지난 1년간 성숙해졌는지 그 외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 아이들 그 자체뿐만 아니라, 배경, 센터, 담당기관, 등 말이다. 단순히 아이들이 좋아서 시작한 활동이지만 더 이상 아이들만 보이지 않는다는 게 너무 슬픈 것 같다. 그렇지만 그 외의 힘든 것들에 묻혀서 아이들을 비뚤게 바라보게 된다니,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아이들은 항상 순수하고 잘못이 없다. 잘못된 것은 아이들에게 그 어떤 가치를 투여하고 대하는 우리들일 것이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요인을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가만히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우리들은 멋대로 가치평가를 하게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지 말아야한다. 항상 공과사를 구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아이를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싶다. 이번 교육봉사를 통해 나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돌아켜보게 되었다.

김*

1학년 때는 매년 시기를 놓쳐 신청하지 못했던 국내 교육 봉사였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교육에 대한 접점은 없기에, 한번쯤은 봉사활동으로 교육 봉사를 가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에 도착한 후, 첫날은 내내 시장 한복판에 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이란 호칭이 어색하고, 아이들은 들뜬 상태로 동시에 말을 걸었습니다. 오기 전에 교육봉사를 했던 친구의 경험담을 들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친구가 존경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나서는 금방 적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본 활동이어서 무시하면 어쩌나 라는 걱정도 들었으나, 오히려 아이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는 열심히 참여해주었습니다. 승부에도 인정할 줄 아는 모습에 어린 아이들이 때론 어른스럽게 보였습니다. 매일 밤, 선생님들이 서로 발견한 아이들의 귀여운 행동들을 이야기하고 그날 찍은 활동사진을 구경하며 하루를 되짚느라,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아이들을 떠올리면 내일이 기대되고, 피곤함도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길고 어찌 보면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있는 4박 5일 동안, 밝고 순수한 아이들을 보면서 제 자신이 오히려 위안을 많이 받았고, 그만큼 아이들에게 정도 들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헤어짐에 익숙한 듯 보여 더 마음이 아파, 역으로 출발하는 차에서 눈물이 났었습니다. 다 끝난 지금은 마치 모든 것이 꿈처럼, 막상 힘들었던 일들도 달콤하게 느껴지고 모든 활동들이 소중한게 느껴졌습니다.

이*연

저는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 봉사를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이화 봉사단 국내 교육의 내용을 보니 딱 제가 하고 싶은 봉사 활동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를 보자마자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형태의 봉사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준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하고, 어떤 스타일의 활동들을 아이들이 좋아할지 감이 잘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 조금씩 허술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팀원들과 함께 잘 메워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하며 저는 상황 대처 능력과 공감 능력이 향상됐음을 느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만큼 돌발 상황들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제가 순발력이 떨어지는 편이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해서 대처하는 것이 느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봉사활동을 하며 우발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 노력하고 아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공간 능력도 향상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과 4박 5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마지막 프로그램을 끝내고 아이들과 마지막 인사를 할 때 너무 아쉽고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 이화봉사단 때도 또 산서지역으로 가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따뜻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든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아이들에게도 이번 일주일이 재미있고 기쁜 시간이었길 기대합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학기 중에는 하기 힘들지만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자 아화봉사단에 지원했는데 계획한 대로 프로그램들이 모두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서 다행이었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느끼게 된 데에는 센터 내 아이들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팀원들을 잘 따라주었고, 센터장님도 친절하게 팀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으며, 팀원들도 모두 각자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수행해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 중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체육대회였는데 그 이유는 체육대회 중, 아이들 사이 경쟁심 때문에 약간의 마찰이 생길 뻔했지만 팀원과 아이들이 서로 간의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순조롭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팀원들이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하며 잘 다독여주고, 아이들도 팀원의 설득이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면 쉽게 수긍하고 다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팀원들과 아이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오랜 기간 합숙을 통해 몸은 다소 힘들었지만, 팀원들과 합심하여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하면서 즐거웠고, 단순히 집주변이 아니라 농촌과 같이 교육 프로그램의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직접 나가서 봉사해 볼 수 있었기에 이번 활동은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한 번 이화봉사단 단원이 되어 활동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